

KLSI

ISSUE PAPER

www.klsi.org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목차]

- | | |
|------------|-------------------|
| 1. 전체 | 2. 남녀 |
| 3. 규모 | 4. 산업 |
| 5. 시도 |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
| 7. 재벌기업 |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
| 9. 비정규직 증감 | 10. 함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주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호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siedit

<요약>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0만 명(40.1%)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 명(20.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만 명(19.7%)이다.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30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0만 명(46.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5만 명(32.7%)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 명(13.7%)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0만 명(40.1%)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6년 3월 현재) －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관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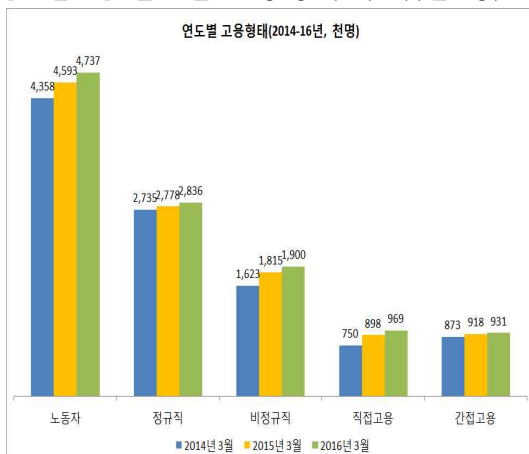
1. 전 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3월 2,942개소에서 2015년 3월 3,233개소로 291개소 증가했고, 2016년 3월에는 3,464개소로 다시 231개소 증가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2014년 436만 명, 2015년 459만 명, 2016년 47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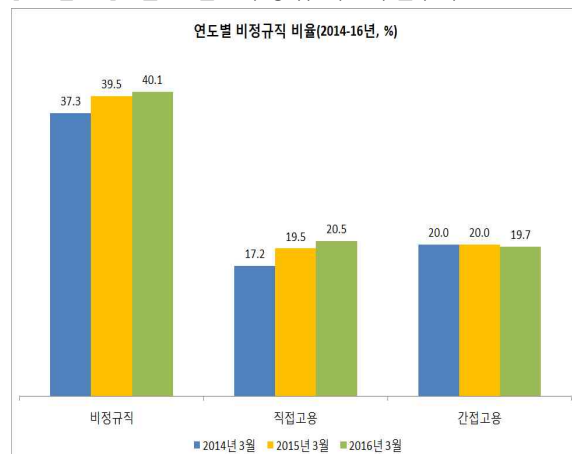
지난 2년 사이 정규직은 274만 명에서 284만 명으로 10만 명 증가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162만 명에서 190만 명으로 28만 명 증가했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75만 명에서 97만 명으로 22만 명 증가했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87만 명에서 93만 명으로 6만 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7.3%에서 40.1%로 2.8%p 증가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17.2%에서 20.5%로 3.3%p 증가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20.0%에서 19.7%로 0.3%p 감소했다.

[그림 1] 연도별 고용형태 추이(천 명)



[그림 2] 연도별 비정규직 비율(%)



[표 1]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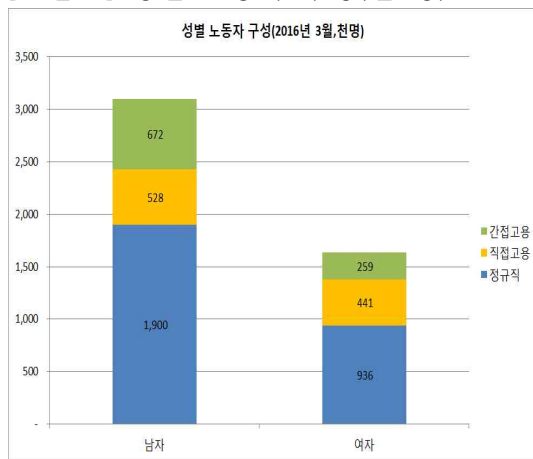
	연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규모	2014년 3월	2,942	4,358	2,735	1,623	750	672	873	37.3	17.2	15.4	20.0
	2015년 3월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0
	2016년 3월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증감	2014-15년	291	235	43	192	148	170	45	2.2	2.3	2.9	0.0
	2015-16년	231	144	58	85	71	58	13	0.6	1.0	0.7	-0.3
	2014-16년	522	379	101	277	219	228	58	2.8	3.3	3.6	-0.3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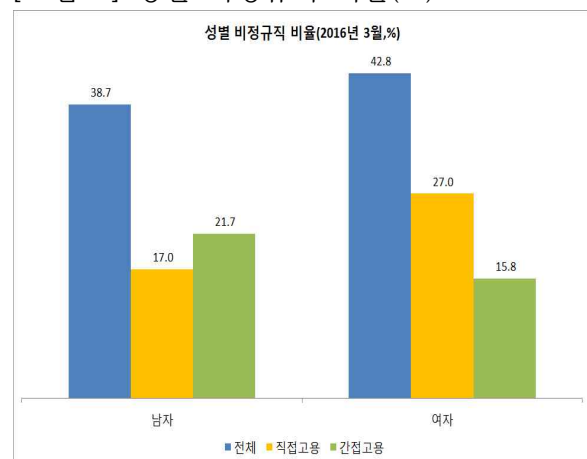
2. 남 녀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에서 일하는 남성 31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20만 명(38.7%)이다. 남성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7만 명(21.7%)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53만 명(17.0%)보다 많다. 여성 노동자 16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0만 명(42.8%)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44만 명(27.0%)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26만 명(15.8%)보다 많다.

[그림 3] 성별 노동자 구성(천 명)



[그림 4] 성별 비정규직 비율(%)



[표 2] 성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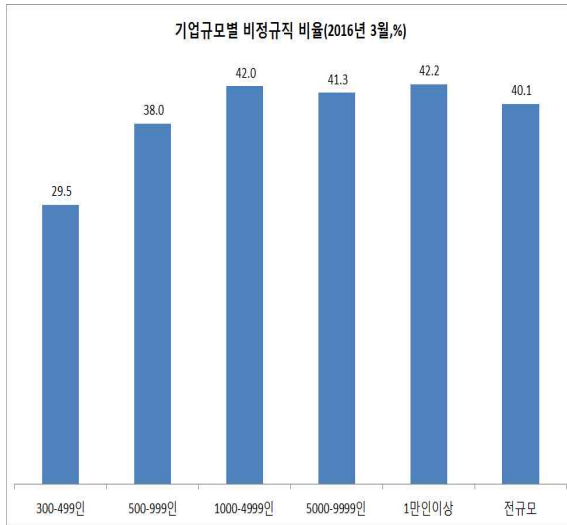
성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남자	3,100	1,900	1,200	528	510	672	38.7	17.0	16.5	21.7
여자	1,636	936	700	441	390	259	42.8	27.0	23.8	15.8
전체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3. 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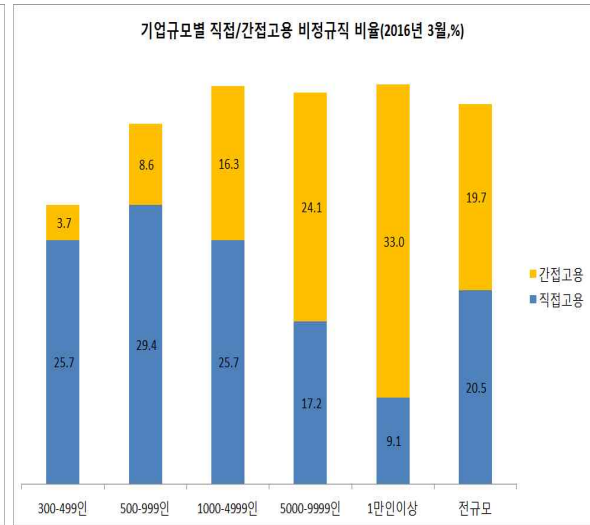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는 300인 미만 기업(300개소 6만 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즉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다. 이에 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500인 이상 1천인 미만 기업(29.4%)을 정점으로 1만 인 이상 거대기업(9.1%)까지 기업규모가 클수록 낮아진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 5] 기업규모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6] 기업규모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표 3] 기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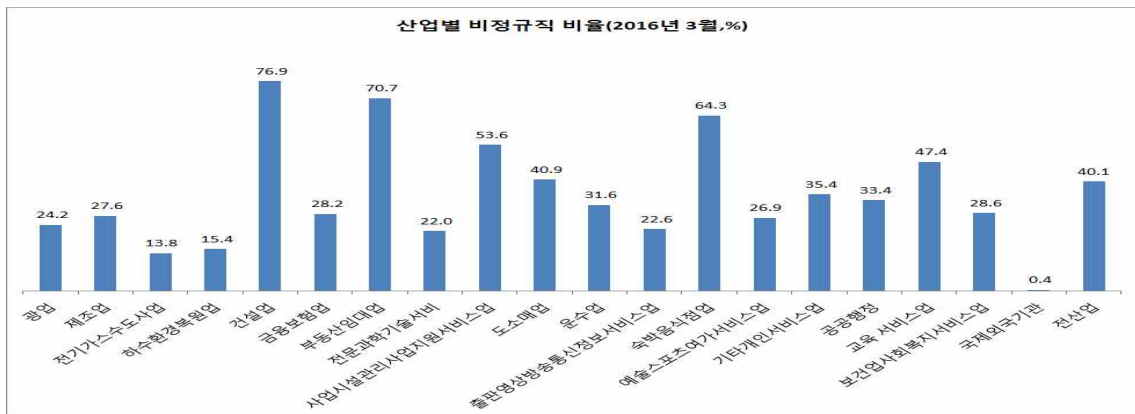
기업 규모 (전체 노동자 기준)	기업 수 (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300인 미만	300	60	34	25	22	21	3	42.2	37.7	35.7	4.5
300-499인	1,126	443	312	131	114	109	17	29.5	25.7	24.7	3.7
500-999인	1,145	792	490	301	233	227	68	38.0	29.4	28.7	8.6
1000-4999인	745	1,425	827	598	367	357	232	42.0	25.7	25.1	16.3
5000-9999인	89	611	359	252	105	82	147	41.3	17.2	13.4	24.1
1만 인 이상	59	1,407	813	593	128	103	465	42.2	9.1	7.3	33.0
전규모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300인 이상	3,164	4,677	2,802	1,875	947	879	929	40.1	20.2	18.8	19.9

4. 산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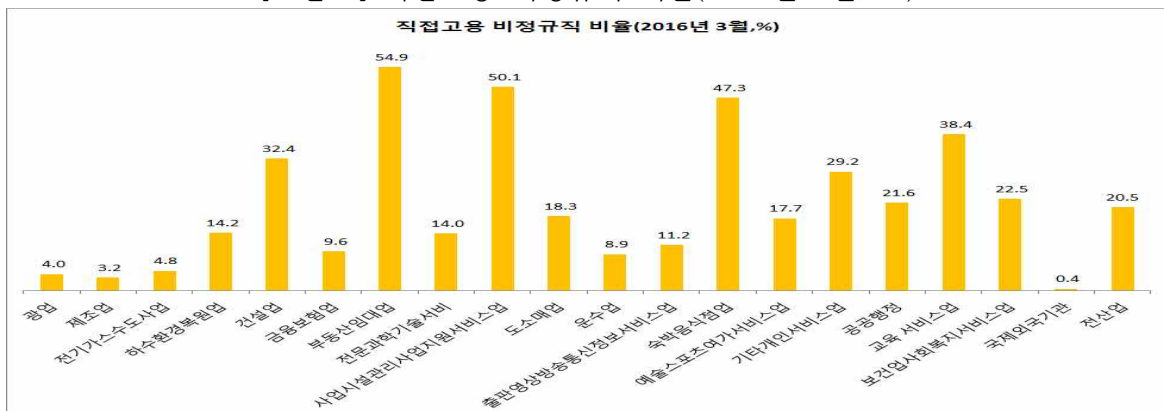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6.9%)과 부동산임대업(70.7%), 숙박음식점업(64.3%), 사업시설 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53.6%), 교육서비스업(47.4%)에서 높고, 하수환경복원업(15.4%), 전기가스수도사업(13.8%), 국제외국기관(0.4%)에서 낮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부동산임대업(54.9%),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50.1%), 숙박음식점업(47.3%), 교육서비스업(38.4%)에서 높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 (44.5%), 제조업(24.4%), 운수업(22.7%), 도소매업(22.6%)에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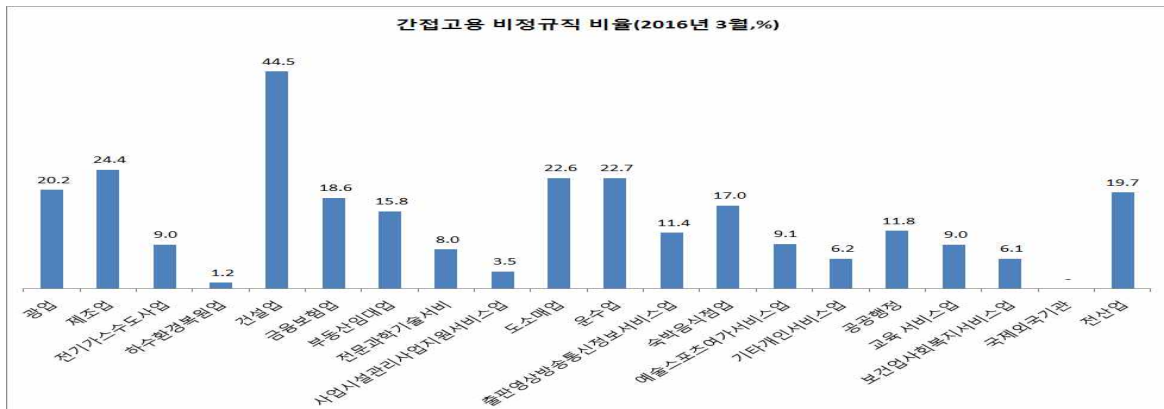
[그림7]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그림 8]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그림 9]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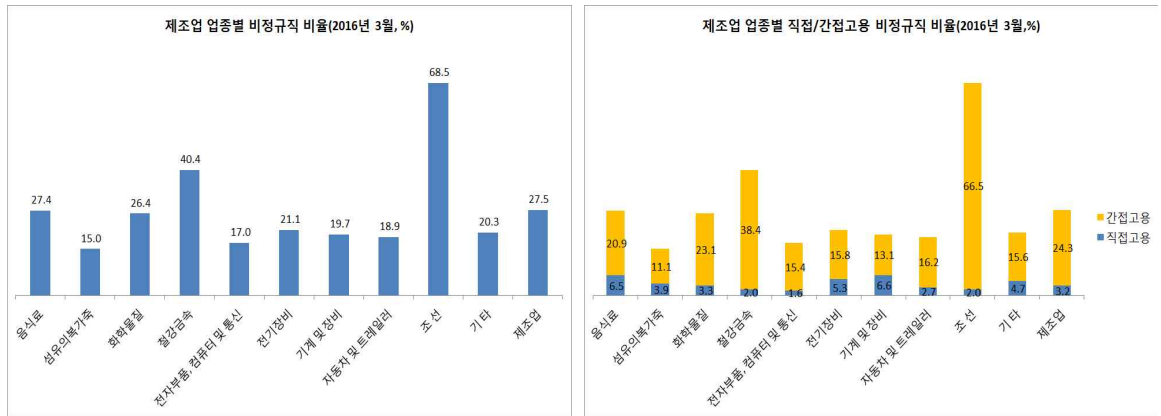
[표4]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대분류 기준)

산업(대분류)	기업 수 (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광업	1	1	1	0	0	0	0	24.2	4.0	4.0	20.2
제조업	922	1,566	1,134	432	50	49	381	27.6	3.2	3.1	24.4
전기가스수도사업	10	7	6	1	0	0	1	13.8	4.8	4.8	9.0
하수환경복원업	5	3	3	1	0	0	0	15.4	14.2	13.8	1.2
건설업	376	474	109	365	154	151	211	76.9	32.4	31.8	44.5
(생사자서비스업)	1,075	1,195	659	536	427	416	109	44.8	35.7	34.8	9.1
금융보험업	145	320	230	90	31	30	59	28.2	9.6	9.4	18.6
부동산임대업	94	103	30	73	56	56	16	70.7	54.9	54.8	1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56	130	101	29	18	18	10	22.0	14.0	13.9	8.0
사업시설관리	680	642	298	344	321	311	23	53.6	50.1	48.5	3.5
(유통서비스업)	542	844	560	284	118	93	166	33.6	14.0	11.0	19.6
도소매업	214	406	240	166	74	60	92	40.9	18.3	14.8	22.6
유수업	172	211	144	67	19	18	48	31.6	8.9	8.8	22.7
출판영상방송통신	156	227	176	51	25	14	26	22.6	11.2	6.2	11.4
(개인서비스업)	151	233	104	129	96	70	32	55.2	41.4	30.2	13.9
숙박음식점업	77	163	58	105	77	52	28	64.3	47.3	31.6	17.0
예술스포츠여가	18	11	8	3	2	2	1	26.9	17.7	17.6	9.1
협회단체수리기타	56	59	38	21	17	17	4	35.4	29.2	28.4	6.2
(사회서비스업)	382	413	259	154	123	120	31	37.3	29.7	29.1	7.6
공공행정국방	6	19	13	6	4	4	2	33.4	21.6	21.5	11.8
교육 서비스업	128	200	105	95	77	77	18	47.4	38.4	38.2	9.0
보건업사회복지	246	184	132	53	41	40	11	28.6	22.5	21.5	6.1
국제외국기관	2	10	10	0	0	0	0	0.4	0.4	0.4	0.0
전사업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조선(68.5%), 철강금속(40.4%), 음식료(27.4%), 화학물질(26.4%), 전기장비(21.1%), 기타(20.3%), 기계및장비(19.7%), 자동차및트레일러(18.9%),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17.0%), 섬유 의복 가죽(15.0%) 순이다.

제조업은 모든 업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특히 조선(66.5%)과 철강금속(38.4%)에서 높다.

[그림 10]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비율(%) [그림 11] 제조업 업종별 직접/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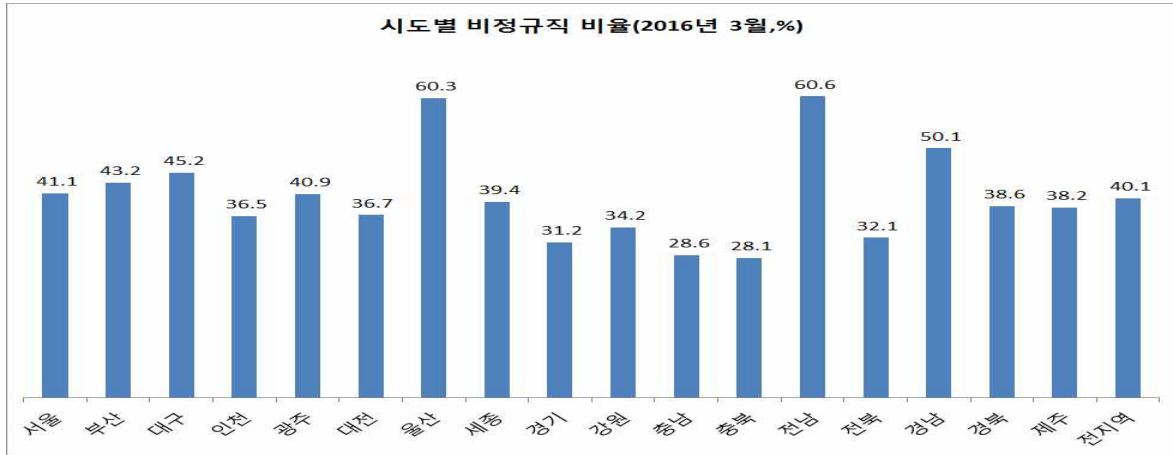
[표5] 제조업 업종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중분류 기준)

산업(제조업 업종)	노동자수 (천 명)	정규직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음식료	129	94	35	8	9	27	27.4	6.5	7.0	20.9
섬유의복가죽	27	23	4	1	1	3	15.0	3.9	3.7	11.1
화학물질	121	89	32	4	4	28	26.4	3.3	3.3	23.1
철강금속	99	59	40	2	2	38	40.4	2.0	2.0	38.4
전자부품, 컴퓨터 및 통신	396	329	67	6	6	61	17.0	1.6	1.5	15.4
전기장비	38	29	8	2	2	6	21.1	5.3	5.3	15.8
기계 및 장비	61	49	12	4	4	8	19.7	6.6	6.6	13.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60	211	49	7	7	42	18.9	2.7	2.7	16.2
조선	197	62	135	4	4	131	68.5	2.0	2.0	66.5
기타	237	189	48	11	11	37	20.3	4.7	4.6	15.6
제조업	1,566	1,134	431	50	49	381	27.6	3.2	3.1	24.4

5. 시 도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60.6%)과 울산(60.3%), 경남(50.1%)이고, 가장 낮은 곳은 충남(28.6%)과 충북(28.1%)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울산(49.5%)과 경남(44.1%), 전남(41.1%)이 가장 높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대구(36.5%)가 가장 높다.

[그림 12] 시도별 비정규직 비율(2016년 3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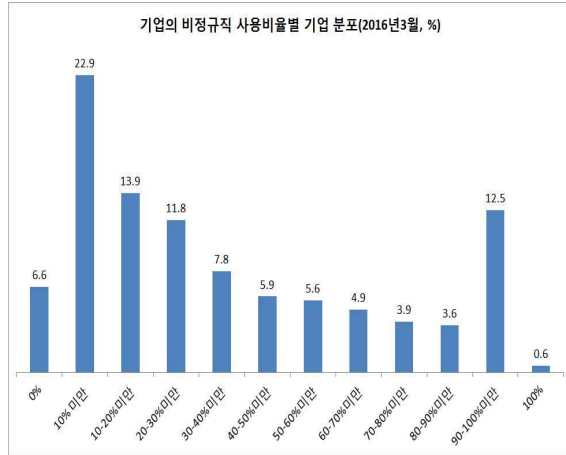
[표7]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시도	기업 수 (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서울	1,650	2,726	1,607	1,120	625	572	495	41.1	22.9	21.0	18.1
부산	212	160	91	69	45	44	24	43.2	28.3	27.4	14.9
대구	90	84	46	38	31	30	7	45.2	36.5	35.9	8.7
인천	131	145	92	53	23	23	29	36.5	16.2	16.1	20.3
광주	62	52	31	21	14	14	7	40.9	27.4	27.2	13.5
대전	80	85	54	31	23	21	8	36.7	27.3	25.1	9.4
울산	62	131	52	79	14	14	65	60.3	10.8	10.7	49.5
세종	14	9	5	4	2	2	1	39.4	25.8	25.8	13.6
경기	576	728	501	227	114	105	113	31.2	15.7	14.5	15.5
강원	43	34	22	11	7	6	5	34.2	19.4	18.8	14.8
충남	92	75	54	21	12	11	10	28.6	15.4	15.2	13.2
충북	68	49	35	14	9	9	5	28.1	18.0	17.4	10.1
전남	53	50	20	30	10	9	21	60.6	19.5	19.0	41.1
전북	49	38	26	12	6	6	6	32.1	16.1	16.0	16.0
경남	139	228	114	114	14	14	101	50.1	6.1	6.0	44.1
경북	117	127	78	49	15	15	33	38.6	12.2	12.0	26.4
제주	26	15	10	6	4	3	2	38.2	27.9	21.7	10.3
전지역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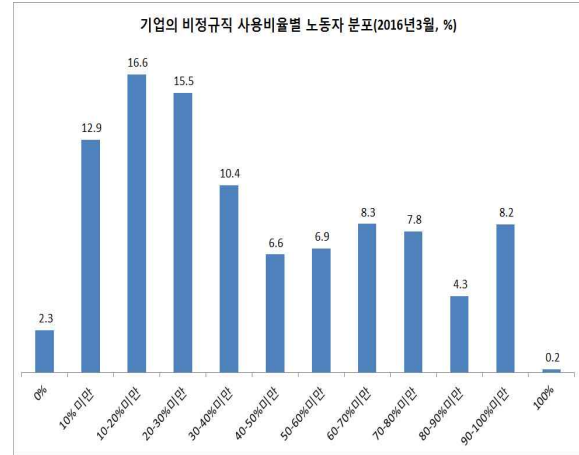
6.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

전체 3,464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229개(6.6%)고, 10% 미만 사용하는 기업이 792개(22.9%)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은 19개(0.6%)고, 90% 이상 사용하는 기업이 452개(13.1%)다.

[그림 13] 비정규직 사용 비율 기업분포(%)



[그림 14] 비정규직 사용 비율 노동자분포



[표8]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별 비정규직 규모

비정규직 비율	기업 수(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수(천 명)				비정규직 구성(%)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고 용
0%	229	111	111	0	0	0	0	0.0	0.0	0.0	0.0
10% 미만	792	612	582	31	17	14	14	5.0	2.8	2.4	2.2
10-20%미만	479	784	667	118	45	40	73	15.0	5.7	5.1	9.3
20-30%미만	406	736	558	178	58	56	120	24.1	7.9	7.6	16.2
30-40%미만	270	493	325	168	73	67	95	34.1	14.8	13.5	19.3
40-50%미만	203	311	173	137	65	56	72	44.2	20.9	18.2	23.3
50-60%미만	193	327	148	179	88	79	91	54.8	26.9	24.3	27.9
60-70%미만	168	391	135	256	77	75	178	65.4	19.8	19.2	45.7
70-80%미만	136	371	92	279	114	94	165	75.2	30.6	25.3	44.5
80-90%미만	126	202	30	172	92	81	79	85.0	45.7	39.9	39.3
90-100%미만	433	390	15	375	3	3	43	96.1	85.1	84.5	11.0
100%	19	9	0	9	8	8	0	100	98.9	95.4	1.1
전체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한데 비정규직을 100% 사용한다고 응답한 19개 기업 9천 명 가운데 11개 기업 5천 명과,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29개 기업 11만 1천 명 가운데 77개 기업 4만 5천 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인력파견 용역 업체이므로 실제로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줄어든다.

7. 재벌기업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5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는 1,736개다. 노동부가 2016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이들 대기업 집단 소속 기업이 481개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21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6만 명(40.8%)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만 명(9.4%)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6만 명(3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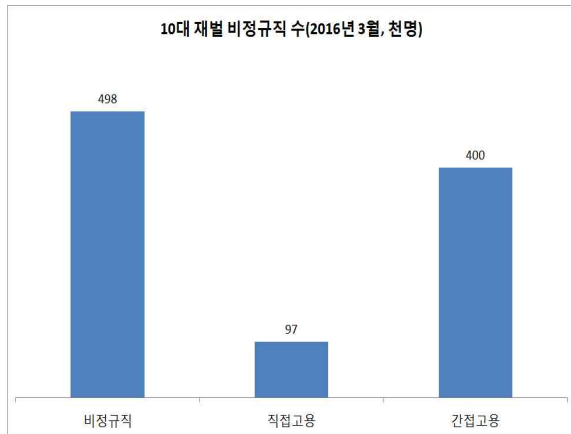
2016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은 28개 집단 1,118개 기업으로 축소될 예정이며,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서는 367개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83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75만 명(40.7%)이다.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6만 명(8.9%)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58만 명(31.8%)이다.

[표9]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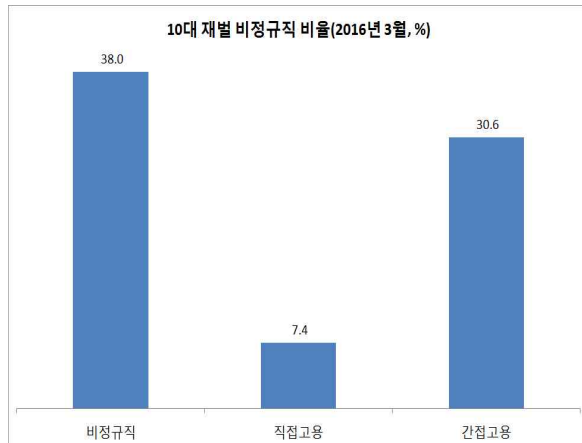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 수(천 명)	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대기업집단(65개)	1,736	481	2,096	1,240	856	196	155	660	40.8	9.4	7.4	31.5
재벌(1-53대)	1,670	472	2,069	1,216	852	196	154	656	41.2	9.5	7.4	31.7
재벌(1-28대)	1,118	367	1,833	1,087	746	164	126	582	40.7	8.9	6.9	31.8
1-10대 재벌	598	233	1,309	811	498	97	92	400	38.0	7.4	7.0	30.6
11-20대	328	92	420	221	199	55	25	144	47.4	13.2	6.0	34.2
21-28대	192	42	104	55	49	11	9	38	47.2	10.5	8.4	36.6
29-53대	552	105	236	129	106	32	28	74	45.2	13.6	12.0	31.6
공기업집단(12개)	66	9	27	23	4	1	1	3	14.5	2.1	2.1	12.3
고용형태 공시제대상		3,464	4,737	2,836	1,900	969	900	931	40.1	20.5	19.0	19.7

10대 재벌 노동자 131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50만 명(38.0%)이다.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0만 명(7.4%)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6%)이다.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그림 15] 10대 재벌 비정규직 수(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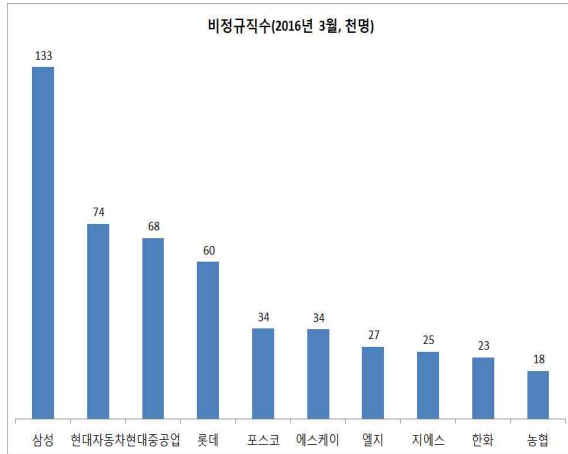
[그림 16]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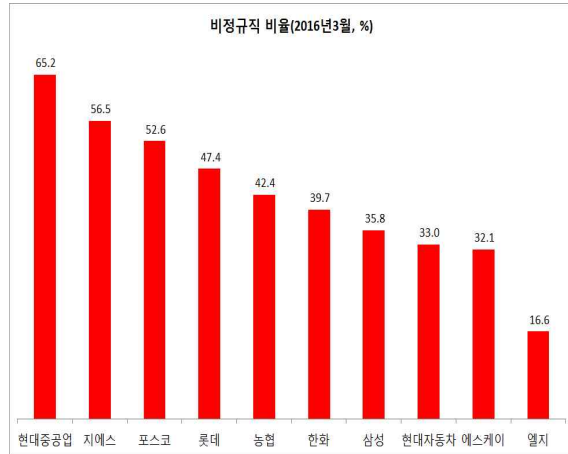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3만3천 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7만4천 명), 현대중공업(6만8천 명), 롯데(6만 명), 포스코(3만4천 명), SK(3만4명), GS(2만5천 명), LG(2만 5천 명), 한화(2만3천 명), 농협(1만8천 명) 순이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5.2%)이 가장 높고, GS(56.5%), 포스코(52.6%), 롯데(47.4%), 농협(42.4%), 한화(39.7%), 삼성(35.8%), 현대자동차(33.0%), SK(32.1%), LG(16.6%) 순이다.

[그림 17] 재벌그룹별 비정규직 수(천 명)



[그림 18] 재벌그룹별 비정규직 비율(%)



[표 10] 대기업 집단별 비정규직 규모(2016년 3월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기업 수(개)	조사기업 수(개)	노동자 수 (천 명)	정규직 수 (천 명)	비정규직 수(천 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삼성	59	36	372	239	133	16	15	117	35.8	4.3	4.1	31.5
현대자동차	51	28	224	150	74	14	14	60	33.0	6.3	6.2	26.8
한국전력공사	27	1	3	2	1	0	0	0	22.1	4.5	4.2	17.6
한국토지주택공사	5											
에스케이	86	34	106	72	34	4	4	30	32.1	4.1	3.6	28.0
엘지	67	31	165	138	27	5	4	22	16.6	2.9	2.7	13.6
롯데	93	30	126	66	60	25	24	34	47.4	20.3	18.9	27.1
포스코	45	15	65	31	34	4	4	30	52.6	6.2	6.2	46.4
지에스	69	15	45	20	25	9	7	16	56.5	20.0	15.8	36.5
한국도로공사	3											
한화	57	20	59	35	23	6	6	17	39.7	10.7	10.6	29.0
현대중공업	26	8	105	37	68	3	3	65	65.2	3.2	3.2	62.0

농협	45	16	43	25	18	10	10	8	42.4	23.8	23.8	18.6
한구가스공사	4											
한진	38	11	48	28	20	4	4	16	41.7	8.0	8.0	33.7
두산	25	7	30	18	13	2	2	11	41.5	5.4	5.4	36.1
케이티	40	14	64	51	13	7	6	6	20.8	10.7	9.2	10.1
신세계	34	13	75	41	35	13	4	21	45.9	17.4	5.0	28.5
씨제이	62	15	71	31	39	22	2	17	55.5	31.5	3.3	24.0
에스에이치공사	2	1	1	1	0	0	0	0	20.5	5.4	5.4	15.1
부영	18	5	9	2	8	1	1	7	83.7	11.1	11.1	72.6
엘에스	45	8	13	10	3	1	1	3	24.3	4.3	4.3	20.0
한국수자원공사	2											
대우조선해양	14	3	49	14	36	0	0	36	72.4	0.5	0.5	72.0
대림	28	6	34	7	27	4	4	23	79.1	12.3	12.2	66.8
한국철도공사	9											
한국석유공사	2											
금호아시아나	24	10	26	20	6	2	2	4	22.5	6.5	6.4	16.0
현대백화점	35	8	26	11	16	3	1	13	59.8	11.1	5.4	48.6
현대	21	7	8	5	2	2	2	1	28.0	20.7	20.7	7.3
오씨아이	22	6	10	5	6	0	0	5	53.4	3.6	3.6	49.9
효성	45	9	25	17	8	2	1	7	33.3	7.7	4.9	25.6
미래에셋	28	4	8	6	2	1	1	1	21.8	14.4	14.3	7.5
에쓰오일	2	1	4	3	1	0	0	1	28.0	3.7	3.7	24.3
인천도시공사	3	1	0	0	0	0	0	0	8.4	7.2	7.2	1.2
대우건설	16	2	15	4	10	3	3	8	70.4	18.5	18.5	51.9
영풍	23	5	8	4	4	0	0	4	53.1	1.6	1.6	51.5
하림	58	7	7	5	2	0	0	2	29.2	4.4	4.4	24.8
케이씨씨	7	4	11	8	3	1	1	2	25.1	10.7	10.7	14.4
케이티앤지	10	3	9	6	3	0	0	2	30.9	3.6	3.6	27.3
한국타이어	14	3	10	8	2	0	0	2	22.6	1.3	1.3	21.3
코오롱	43	9	16	8	8	1	1	7	49.1	8.1	8.1	41.0
교보생명보험	13	5	11	7	5	2	2	3	41.8	13.7	13.7	28.1
한국투자금융	24	1	3	2	1	1	1	0	32.1	18.8	18.3	13.3
동부	25	16	19	15	3	2	2	2	18.2	8.0	7.9	10.2
한라	22	4	10	5	4	1	1	4	44.1	7.3	7.3	36.8
동국제강	15	2	4	3	2	0	0	1	35	0.8	0.8	34.2
한진중공업	9	2	11	3	8	1	1	7	70.2	8.0	8.0	62.1

세아	22	5	6	4	2	0	0	2	31.1	1.3	1.3	29.8
중흥건설	49	4	7	1	6	0	0	6	91.0	4.9	4.9	86.2
이랜드	29	5	30	8	22	15	12	7	73.1	50.9	40.5	22.2
한국지엠	2	1	19	16	3	0	0	3	15.5	0.1	0.1	15.4
태광	26	6	9	6	3	2	2	1	31.5	20.4	20.4	11.0
태영	43	5	8	4	4	1	1	3	46.9	9.6	9.6	37.3
아모레퍼시픽	12	1	13	5	7	0	0	7	57.8	3.9	3.9	53.9
현대산업개발	17	4	13	1	12	2	1	10	89.1	12.8	9.5	76.4
서울메트로	4	2	14	11	3	0	0	3	19.7	0.4	0.4	19.3
서울도시철도공사	3	3	9	9	0	0	0	0	3.0	2.2	2.2	0.9
셀트리온	8	2	2	1	0	0	0	0	18.9	6.9	6.9	12.1
하이트진로	13	1	6	3	2	0	0	2	40.8	2.0	2.0	38.8
삼천리	16	3	1	1	0	0	0	0	14.0	8.4	8.4	5.5
부산항만공사	2	1	0	0	0	0	0	0	26.0	26.0	26.0	0.0
한솔	20	8	7	3	4	2	2	2	56.5	33.1	32.9	23.4
금호석유화학	10	1	2	1	1	0	0	1	43.6	2.0	2.0	41.6
카카오	45	3	3	3	0	0	0	0	11.9	10.1	10.1	1.8

주: 음영(자산총액 10조원 미만 집단 또는 공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될 집단

8. 1만 명 이상 거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 기업 중 노동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거대기업은 59개사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1만 명이고 비정규직은 59만 명(42.2%)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6만 명(33.0%)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13만 명(9.1%)보다 많다.

현대산업개발(91.1%), 한국맥도날드(89.5%), 이랜드파크외식사업부(88.2%), 롯데건설(81.9%), 현대건설(81.7%), 한화건설(81.4%) 6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가 넘고, 엘지디스플레이(9.9%)는 10%가 안 된다. 기업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크다.

[표 11] 1만 인 이상 거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회사이름	산업	노동자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수(명)				비정규직 비율(%)			
				전체	직접 고용	기간제	간접 고용	전체	직접 고용	기간 제	간접 고용
아모레퍼시픽	20	12,611	5,324	7,287	487	487	6,800	57.8	3.9	3.9	53.9
효성	20	11,656	7,717	3,939	395	395	3,544	33.8	3.4	3.4	30.4
LG화학	20	17,624	14,738	2,886	131	131	2,755	16.4	0.7	0.7	15.6
포스코	24	35,263	16,322	18,941	694	694	18,247	53.7	2.0	2.0	51.7
현대제철주식회사	24	22,426	11,179	11,247	229	229	11,018	50.2	1.0	1.0	49.1
에스케이하이닉스	26	28,458	22,158	6,300	117	117	6,183	22.1	0.4	0.4	21.7
삼성전자	26	126,012	99,322	26,690	1,578	1,440	25,112	21.2	1.3	1.1	19.9
삼성디스플레이	26	30,243	25,360	4,883	217	185	4,666	16.1	0.7	0.6	15.4
삼성에스디아이	26	11,243	9,650	1,593	266	264	1,327	14.2	2.4	2.3	11.8
삼성전기	26	13,569	11,929	1,640	189	161	1,451	12.1	1.4	1.2	10.7
엘지전자	26	41,849	37,392	4,457	641	641	3,816	10.7	1.5	1.5	9.1
엘지디스플레이	26	36,556	32,942	3,614	59	33	3,555	9.9	0.2	0.1	9.7
현대모비스	30	14,829	8,574	6,255	263	261	5,992	42.2	1.8	1.8	40.4
현대자동차	30	77,141	63,610	13,531	3,324	3,324	10,207	17.5	4.3	4.3	13.2
한국지엠부평공장	30	18,975	16,032	2,943	19	19	2,924	15.5	0.1	0.1	15.4
기아자동차	30	38,940	33,916	5,024	312	312	4,712	12.9	0.8	0.8	12.1
현대삼호중공업	31	16,343	4,027	12,316	133	133	12,183	75.4	0.8	0.8	74.5
대우조선해양	31	48,250	12,596	35,654	157	157	35,497	73.9	0.3	0.3	73.6
현대미포조선	31	10,856	3,510	7,346	111	111	7,235	67.7	1.0	1.0	66.6
현대중공업	31	71,580	25,009	46,571	1,919	1,919	44,652	65.1	2.7	2.7	62.4
현대산업개발	41	11,534	1,022	10,512	925	925	9,587	91.1	8.0	8.0	83.1
롯데건설	41	11,684	2,113	9,571	1,916	1,916	7,655	81.9	16.4	16.4	65.5
현대건설	41	24,616	4,500	20,116	3,626	3,604	16,490	81.7	14.7	14.6	67.0
한화건설	41	10,003	1,865	8,138	1,026	1,026	7,112	81.4	10.3	10.3	71.1
대림산업	41	24,791	4,976	19,815	2,708	2,708	17,107	79.9	10.9	10.9	69.0
SK건설	41	20,068	4,805	15,263	1,321	1,321	13,942	76.1	6.6	6.6	69.5
포스코건설/본사	41	13,388	3,469	9,919	1,951	1,951	7,968	74.1	14.6	14.6	59.5
GS건설	41	19,634	5,527	14,107	3,161	3,161	10,946	71.8	16.1	16.1	55.8

대우건설	41	13,865	4,175	9,690	2,492	2,492	7,198	69.9	18.0	18.0	51.9
삼성중공업건설	41	44,716	13,636	31,080	652	635	30,428	69.5	1.5	1.4	68.0
삼성엔지니어링	41	11,581	4,893	6,688	893	893	5,795	57.7	7.7	7.7	50.0
삼성물산	46	29,071	10,909	18,162	3,286	3,260	14,876	62.5	11.3	11.2	51.2
홈플러스	46	24,145	13,507	10,638	6,765	2,086	3,873	44.1	28.0	8.6	16.0
롯데리아	47	10,942	2,231	8,711	8,705	7,895	6	79.6	79.6	72.2	0.1
현대그린푸드	47	10,092	3,906	6,186	1,154	496	5,032	61.3	11.4	4.9	49.9
롯데쇼핑	47	42,155	23,599	18,556	5,786	5,070	12,770	44.0	13.7	12.0	30.3
이마트	47	38,503	26,602	11,901	3,060	1,918	8,841	30.9	7.9	5.0	23.0
씨제이대한통운	49	15,067	5,094	9,973	284	283	9,689	66.2	1.9	1.9	64.3
서울메트로	49	11,992	9,374	2,618	12	12	2,606	21.8	0.1	0.1	21.7
대한항공	51	25,291	18,231	7,060	1,856	1,847	5,204	27.9	7.3	7.3	20.6
아시아나항공	51	10,610	8,478	2,132	522	508	1,610	20.1	4.9	4.8	15.2
한국맥도날드	56	10,756	1,126	9,630	9,624	8,364	6	89.5	89.5	77.8	0.1
이랜드파크외식사업 부분점	56	14,953	1,763	13,190	13,190	10,031	0	88.2	88.2	67.1	0.0
삼성웰스토리	56	13,404	3,059	10,345	3,371	3,367	6,974	77.2	25.1	25.1	52.0
씨제이푸드빌	56	16,136	4,291	11,845	10,112	9	1,733	73.4	62.7	0.1	10.7
아워홈	56	11,311	4,732	6,579	4,461	3,305	2,118	58.2	39.4	29.2	18.7
삼성에스디에스	58	18,134	13,898	4,236	233	178	4,003	23.4	1.3	1.0	22.1
KT	61	27,270	23,105	4,165	118	118	4,047	15.3	0.4	0.4	14.8
농협은행주식회사	64	20,331	13,847	6,484	2,942	2,942	3,542	31.9	14.5	14.5	17.4
신한은행	64	18,460	13,967	4,493	650	383	3,843	24.3	3.5	2.1	20.8
주식회사하나은행	64	19,665	14,920	4,745	665	665	4,080	24.1	3.4	3.4	20.7
국민은행	64	24,242	19,952	4,290	561	561	3,729	17.7	2.3	2.3	15.4
우리은행	64	18,203	15,187	3,016	694	694	2,322	16.6	3.8	3.8	12.8
유니에스(임대및사 업서비스)	75	10,811	2,702	8,109	8,109	8,109	0	75.0	75.0	75.0	0.0
에스원	75	16,634	5,880	10,754	354	354	10,400	64.7	2.1	2.1	62.5
케이티씨에스	75	10,417	8,518	1,899	1,896	1,060	3	18.2	18.	10.2	0.0
학교법인가톨릭학원	84	17,124	11,948	5,176	2,945	2,933	2,231	30.2	17.2	17.1	13.0
학교법인연세대학교	85	18,946	12,325	6,621	3,851	3,818	2,770	34.9	20.3	20.2	14.6
아산사회복지재단	86	11,598	8,026	3,572	1,215	1,210	2,357	30.8	10.5	10.4	20.3
59개사		1,406,567	813,465	593,102	128,333	103,121	464,769	42.2	9.1	7.3	33.0

9. 비정규직 증감

지난 1년 동안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0.6%p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0.2%p 감소했고, 500인 이상 기업은 증가했다.

재벌그룹 계열사는 0.2%p 증가했다. 10대 재벌은 0.3%p 증가했고, 11-20대 재벌은 0.5%p 감소했다. 10대 재벌은 한화(12.1%p), SK(4.1%p), 한진(3.1%p), 포스코(2.4%p), LG(0.9%p), GS(0.4%p), 삼성(0.2%p)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했고, 현대자동차(-2.5%p), 현대중공업(-1.5%p), 롯데(-0.1%p)는 감소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은 지난 1년 사이 비정규직 비율이 2.7%p 증가하고,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7.6%p)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3.0%p)은 감소했다.

[표 12] 비정규직 비율 증감 현황(2015~16년)

구분	증감(%p)			구분	증감(%p)				
	비정규직 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비정규직 비율	직접 고용	간접 고용		
규모	300인미만	0.5	-0.5	1.1	산업	광업	-0.1	-0.1	0.0
	300-499인	-0.2	0.3	-0.6		제조업	-0.5	0.1	-0.6
	500-999인	1.5	0.7	0.7		전기가스수도사업	0.2	0.9	-0.7
	1000-4999인	0.2	0.2	-0.1		하수환경복원업	0.0	-0.3	0.3
	5000-9999인	2.1	3.7	-1.5		건설업	2.7	2.8	-0.1
	1만 인 이상	0.5	0.3	0.1		금융보험업	1.8	0.1	1.8
재벌	재벌	0.2	0.7	-0.5		부동산임대업	0.5	0.3	0.2
	10대재벌	0.3	0.4	-0.1		전문과학기술서비	1.2	-1.1	2.2
	11-20대재벌	-0.5	1.3	-1.9		사업시설관리	1.0	1.2	-0.2
10대 재벌	삼성	0.2	-0.1	0.3		사업지원서비스업	0.0	0.0	0.0
	현대자동차	-2.5	-0.3	-2.0		도소매업	0.2	0.5	-0.3
	에스케이	4.1	-0.3	4.4		운수업	1.3	0.4	0.9
	엘지	0.9	0.1	0.7		출판영상방송통신	-3.0	2.7	-5.7
	롯데	-0.1	-0.9	0.8		숙박음식점업	0.4	1.5	-1.1
	포스코	2.4	0.0	2.4		예술스포츠여가	-17.6	0.3	-18.0
	지에스	0.4	0.2	0.2		협회단체수리개인	-0.1	-1.8	1.7
	한화	12.1	-1.1	13.2	공공행정	0.5	0.3	0.3	
	현대중공업	-1.5	0.4	-1.9	국방사회보장행정	0.0	0.0	0.0	
	한진	3.1	1.0	2.1	교육 서비스업	-2.3	-4.0	1.7	
전체		0.6	1.0	-0.3	보건업사회복지	-1.3	-0.4	-0.9	
					국제외국기관	0.1	0.1	0.0	

10. 함 의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2016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47만 명(전체 노동자의 12.8%)이고 비정규직 비율은 13.5%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다수(사업체 수 99%, 노동자수 88%)가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9988 신조어(新造語)가 생겨났고, ‘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되어 왔다.

하지만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임금근로 일자리 행정통계’에서 2014년 정부와 민간 대기업 노동자는 738만 명(전체 노동자의 43.3%)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의 노동정책 방향은 노동시장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부와 대기업이 올바른 노동정책을 선택하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90만 명(40.1%)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7만 명(20.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3만 명(19.7%)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노동자 64만 명을 정규직 30만 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2만 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 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20만 명(46.4%),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5만 명(32.7%)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5만 명(13.7%)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5년에는 182만 명(39.5%)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90만 명(40.1%)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청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